

#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 Q. 자녀출산의 의미

신부님! 요즘 주변을 보면,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말이지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나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부부의 자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나요?

# A.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혼인성사에 대해 살펴보며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일곱 가지 성사 중 무엇이 가장 먼저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은 부부애의 증진과 자녀 출산입니다. 먼저 부부애의 증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과 의지, 영혼까지 포함한 전 존재를 주고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인격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본능으로 육체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동물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요.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 1, 27-28). 자녀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생식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식력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생명에 열려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인 아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하지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性)을 주신 이유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차단하는 피임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性)은 '자녀의 차원'에서 시작해 '혼인의 차원'을 거쳐 '부모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나의 사랑은 성숙해지고 무르익습니다. 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자녀 출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차원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때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는 역할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은 영성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性)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어진 성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펼칩니다.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만을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성적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고, 다음 날에는 중성이나 무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성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기지 않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녀의 차원에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성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역시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혼인을 합니다. 이제 받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함께 통교하는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남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일치를 이룹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원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었기에 알몸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차원에서는 성과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면, 혼인의 차원에서는 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상호 증여를 통해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룹니다.

혼인의 차원에서 이제 부모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부부는 사랑을 통해서 아기를 가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받기만 했던 수동적인 사랑에서 시작해 주고받는 상호 증여의 사랑을 거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내주는 사랑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 발달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칠 때까지는 자녀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면 혼인의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진행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마지막 단계인 부모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도 맞지 않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생식력을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은 생명과 출산을 향해 있습니다. 혼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란 배우자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의 전 존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생식력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생식력을 통해 자녀를 낳고, 주님의 선물인 자녀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자녀 출산에는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두 사람만의 사랑에서 좀 더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생각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하십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은 자유롭고(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온전하고, 충실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번 호로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의 연재를 마칩니다. 원고를 집필해 주신 이성웅 신부님과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